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

“곤충 옷 색깔의 숨겨진 비밀!!”



햇빛이 팽팡하고 무더운 여름, 공원을 산책하다 금금종이 생겼어요. 곤충들은 어떤 옷을 입고 여름을 보내고 있을까요? 곤충들은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보호색 옷을 입고 있는 곤충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주위환경과 색이 닮아서 다른 동물에게 발견되지 않아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파벌레

나무와 같은 색 옷을 입고 나무에 붙어있어요. 나무인줄 알고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참매미

여름대표곤충 매미는 나무껍질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주의깊게 관찰해야 만날 수 있어요.



섬서구메뚜기

초록색 옷을 입고 풀 위에 앉아 있으니 풀인지 메뚜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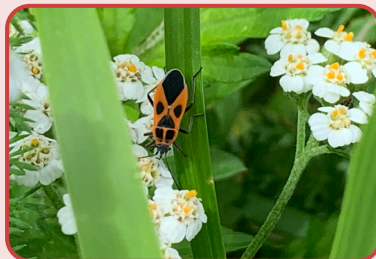
경고색 옷을 입고 있는 곤충

화려한 색과 무늬의 옷을 입고서 자신이 위험한 곤충이라는 것을 다른 동물에게 경고함으로써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칠성무당벌레

무당벌레는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나는 액체를 다리 마디 사이에서 내뿜어요. 화려한 색깔의 옷으로 천적에게 경고를 해요.



십자무늬노린재

노린재는 위험을 느끼면 지독한 냄새를 풍겨 방귀대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무당거미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고 다른 천적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거미의 위턱에는 독이 나오는 독이빨(염니)이 있어요.



보호색과 경고색을 찾아라

보호색 옷을 입고 있으면 **초록색**, 경고색 옷을 입고 있으면 **빨간색**에 연결해 주세요.



저벌레

○

○

경고색



철성무당벌레

○

○

보호색



섬서구메뚜기

○

○

경고색



참매미

○

○

보호색



십자무늬긴노랑재

○

○

경고색



무당거미

○

○

보호색

만든이 :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정희
도움 : 공원여가과 김윤희